

반드시 지켜야 할 의사의 기본 도리

의사의 주된 업무는 환자 진료이다. 그러나 필자 같은 교수들은 학생교육, 전공의교육, 연구, 사회활동 등 환자 진료 이외에 부과된 역할이 나름대로 다양하다. 어떤 면에서는 교수들의 사회 참여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 하겠다.

여기서 의사 또는 교수의 사회 참여를 논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들 중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100% 훌륭하나 사회적 융통성, 쉽게 말해 사회성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자연히 자기들이 살아 왔고,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이외에는 능력 또는 대처할 힘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결과 야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종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통한 내용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사의 진료 업무 가운데 소위 환자를 타의사에게 의뢰 혹은 이송하거나 거꾸로 의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의뢰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진료가 최선기기를 바라는 경우와 더불어 환자에게 자신의 체면도 어느정도 유지할 목적도 있음이 틀림없다. 또한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된 환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예의와 심혈을 기울여 환자의 진료에 득이 되게 하고 또 의뢰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종종 그렇지 못해서 환자의 진료,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특히 의사와 의사의 관계 등에 심각한 양상이 생기기도 한다.

1979년도 미국에서 가정의학 수련을 마치고 귀국하여, 한국의 가정의학을 설립하는 데 힘을 기울여 드디어 1986년 가정의학이 243번째 전문 과목으로 법에 명시되었다. 그러나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꽤 어려움이 있다.

처음 환자를 입원시켜서 진료하던 중, 목이 아픈 환자라서 타 과에 의뢰한 적이 있었다. 그 다음날 환자의 병실에 회진을 가니, 환자가 퇴원을 하겠다고 하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유는 이랬다. 의뢰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러 온 의사가, 목이 아프면 직접 자기들 과로 오지 왜 필자의 과로 갔느냐? 다음부터는 직접 자기들 과로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별 것 아닌데 왜 쓸데없이 입원을 했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처음 당하는 일이었고 또 필자의 전공 과목 진료의 초창기 때에 생긴 일이라 참으로 넘어갔으나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생각되어야 할 문제는 많다. 첫째 의학교육의 문제점이다.



윤 방 부

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의과대학시절 의학지식의 습득과 기술의 중요성 만이 강조되고 기본적인 의사의 도리 또는 윤리가 소홀했다는 것이다. 예과시절, 의과대학의 1~2학년 시절에 소위 의사의 기본자세, 또 의뢰와 이송에 대한 개념이 가르쳐 졌어도 이와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환자를 의뢰하는 의사와 의뢰받은 의사는 몇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1) 의사의 수련 및 실력, (2) 최근에 계속적인 연수교육을 받았는지, (3) 환자에게 적용할 수기(手技), 치료법 등을 자주 시행해 왔는지, (4) 또는 의사의 성격이 환자와 잘 어울릴 것인지, (5) 의뢰받은 사항에 대하여 얼마나 성실히 답을 할 것인지 등이다.

또 의뢰받은 의사는 (1) 의뢰한 의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2)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지, (3) 의뢰한 의사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의뢰받은 의사는 환자에게 직접 그 결과를 말해서는 절대 안되고 의뢰한 의사에게 자기의 생각과 결과를 전하고 토의하며, 의뢰한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의뢰의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송인 경우는 의뢰하는 환자에 관한 모든 책임과 권리, 진료 방법 등을 이송받은 의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좀 다르다 하겠다. 단지 이러한 경우는 의뢰한 의사가 환자의 대변인 역할과 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환자의 진료가 최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뢰와 이송에 있어 때로는 환자 치료에 있어서 최상의 방법보다는 책임을 타 의사에게 떠 넘기려고 하는 문제도 있다. 다시 말해서 귀찮은 환자를 떠 넘김으로써 진료에 있어서 골치아픈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사와 의사간에 서로 싸고서 환자를 이송하거나 의뢰하여 서로의 책임과 진료의 부담을 더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셋째로는 의뢰한 의사와 의뢰받은 의사 간의 감정 충돌로 확산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의뢰받은 의사가 마치 우월한 것처럼 제스처를 쓰거나 하면 결국 감정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의사와 의사간의 환자의 의뢰와 이송은, 단어는 간단하지만 그 내용과 의미는 자못 크다 하겠다. 73